



떠남에서 얻는 편안함

* 글 | 함정임 소설가

혹은 또 다른 삶의 유희

● 빗속에 온종일 수원 성곽을 헤매돌았다. 지지대 고개를 넘어 정조 행궁의 유적지 신평동 화령전과 화홍문 옆 방화수류정, 남수동 용주사 말사 포교당, 인계동 나혜석 거리, 서둔동 구 서울농대 캠퍼스 내 서호西湖 정자... 비는 오후가 되면서 폭우로 변했고, 서호를 떠나는 내 발길을 붙잡고 좀체 놓아주지 않았다. 호수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비안개에 잠긴 성곽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는 하루라는 긴 여정을 마감하는 여행자의 감회에 젖어들었다. 신간을 낸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작가의 현실로 보자면, 게다가 출강하는 대학 보강에 종강, 그리고 줄줄이 닳친 마감 원고들의 현실로 보자면, 나는 그날 거기, 성곽 도시 여기저기를 유유히 떠돌아다닐 수 없었다. 굳이 연유를 찾자면 없지는 않았다. 내 책의 나혜석 부분을 소개한 신문 기사를 보고 백발의 노신사가 연락을 해왔고, 수원의 나혜석 족적을 몸소 안내하겠다는 그분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였고 속사정은 다른 데 있었다. 이즈음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내 삶의 속도를 한 순간 늦추고 싶다는, 그리하여 어딘가로 가서 숨을 좀 쉬고 싶다는 내 안의 절박함이 그것이었다.

나는 7년 전부터 한 가정의 가장이다. 거들어주는 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과 작품활동을 해왔다. 이런 나에게 휴식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숨가쁜 일상 속에서, 늘 마감에 시달리는 작업 속에서 호시탐탐 오분이나 십분, 한두 시간 또는 반나절, 숨쉴 곳과 대상을 찾는다. 그것은 휴식이라기보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배려하는 자리, 예의라고 할 수 있다.

● 창가에 기르는 자잘한 꽃이나 언제봐도 단아한 피아노, 장미가시처럼 날카로운 귀퉁이를 자랑하며 서가에 꽂힌 화집들, 서랍에 가득 차오른 여행엽서들, 장식대를 두루 차지한 여행 소품들, 냅킨들, 식탁보들, 디지털카메라 등. 한번 글감옥, 마음의 지옥에 빠지면 제아무리 아름다운 호수가 길 건너에 있어도 문 열고 나가지 못하는 나는, 이들을 바라보고 만져보고 그 사이를 배회하는 것으로 위안과 휴식을 삼는다. 쇼팽이나 모차르트, 비틀즈의 음과 색들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는 것, 또는 프라고나르나 로랭, 터너나 톰블리들의 색과 선들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때로 백건우의 단아하면서도 다이나믹한 타건에 못지않은, 그리고 런던 테이트갤러리 터너의 방이나 스위스 취리

히시립박물관의 톰블리 작품들 벽 앞에서 있는 듯한 감동을 느끼고, 그 울림, 그 깊이 에 의해 한없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부드러워진 나를 느낀다. 이렇듯 나에게 휴식은 작은 화분에 자라는 하찮은 화초이고 화집 속 세상들이고 슈베르트와 비틀즈의 음악들이다. 그들에게 잠시 잠깐 몰두함으로써 방금 전의 나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다 일 년 중 한번은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영혼들, 그 모든 잡다한 일상들을 배낭에 넣고 멀리, 내가 숨쉬고 산 이 하늘과 이 땅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그야말로 또 다른 삶을 감행하는 것이다.

● 또 다른 삶을 감행하는 것, 그것이 휴식인가? 누군가 물을 법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 나는 아직 그 이상의 휴식법을 알지 못한다. 나는 편안히 쉬기 위해 항상 어디론가 떠났다. 가만히 있는 것만이 꼭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순간, 삶은 오히려 두 배로 확장된다. 나를 짓눌렀던, 나를 가득 채웠던 것들이 서서히 비워지고 가벼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것, 그 행위가 여행적 삶이다. 인생이란 하나의 그랑 투르(대모험, 대여행)다. 모험 없이는 삶도, 그 인식도 없다. ☐